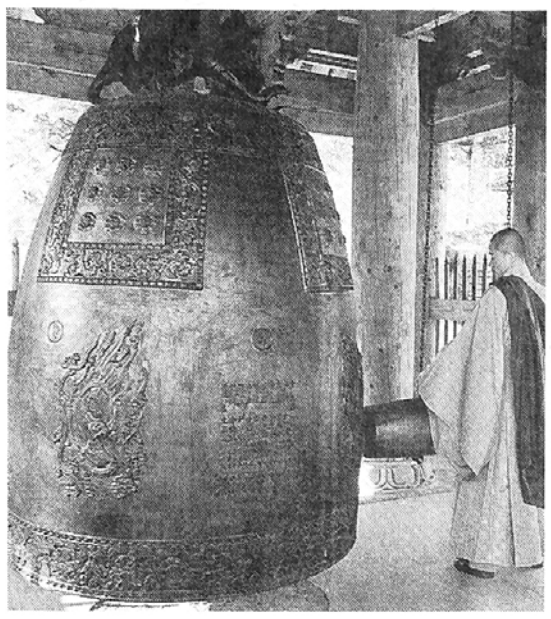
정축 새아침—금강산 최남단 **화암사**를 가다

신년특집 97



◇새해 첫날, 통일의 대염원을 실은 범종소리가 한반도 곳곳을 향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금강산의 남쪽 끝봉우리 신선봉은 남쪽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일만이천봉우리의 첫봉이다. 저 먼 동해의 눈시린 침묵을 깨고 통일의 소식인양 장엄하게 떠오르는 새해의 찬란한 햇살을 온 몸으로 맞아들이는 신선봉을 바라보는 실향의 불자들. 금강산 남녘 첫 자락에 자리한 화암사 법당에서 새해 첫날을 맞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그려지고 있을까.
〈편집자 주〉

◇금강산 남녘 첫봉우리 신선봉을 주봉으로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화암사는 통일염원 기도도량으로 실향민들의 발길이 연중내내 끊이지 않는다.

"통일 범종소리 신선봉 타고 북으로…"

전국서 실향불자들 모여 향수달래며 불공
신선봉 절경·금강계곡 물소리에 속진떨쳐

화암사 법당은 납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실향불자들로 가득했다. '새해에는 고향 하늘을 볼 수 있을까' 결코 버릴수 없는 꿈. 고향에 가는 꿈을 한해가 저무는 마지막날 밤 고향으로 이르는 길목의 부처님 무릎 아래서 꾸고 싶은 마음이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이리라. 그리고 그들은 꿈을 현실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샜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금강산 화암사. 해마다 정초가 가까워지면 화암사를 찾아 기도를 올린다는 칠순의 김두애심보살은 "북쪽이 가까워 서인지 화암사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며 "머지않아 통일이 이뤄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도 화암사의 범종은 실향민들의 망향의 한과 통일의 대염원을 실어 신선봉에서부터 일만이천 봉우리를 타고 북녘을 향해 장엄하게 울려퍼졌다.

밤새워 새날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불자들은 검은 실루엣을 벗고 동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힘차게 솟아오르는 찬란한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성취와 통일을 발원했다.

> "잘려진 금강산 허리 이어
> 신선봉에서 백두산 병사봉까지
> 마음놓고 유행할 수 있는
>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금강산의 일만이천 봉우리가 남쪽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 내려오다 모든 위용을 맘껏 토해 낸 곳이 바로 신선봉. 화암사는 바로 이곳에 웅장한 모습으로 금강산을 그리워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화암사의 새해 일출은 흔한 바닷가의 일출과는 또다른 감흥을 준다. 기암절벽으로 이어진 금강산의 기기묘묘함과 조화를 이루고 이곳을 찾아온 실향민들의 애틋한 향수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청소년 1천명 수계

해마다 새해 첫 새벽에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하는 주지 문석스님은 "화암사가 금강산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통일염원과 고향을 잃은 허탈한 향수에 젖은 실향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며 "오늘 이 법회가 통일기원법회로선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곳은 마치 북녘 땅을 밟고 있는 느낌이다. 실향민들 또한 화암사를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향으로 여긴다. 화암사를 찾아오는 실향민들도 한가족으로 어우러진다. 특히 새해벽두에 화암사를 찾아온 실향민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는 다르다.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바탕 털어놓고 싶은 얼굴들이다.

이런 실향불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아는 문석스님은 법문대신 "신선봉에서 흘러내려오는 세진폭포물이 동해로 흘러 하나로 어우러지듯이 통일도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니다"며 함께 통일은 염원했다.

비록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향땅은 아니지만 일만이천봉 금강산의 정기와 북녘의 정감어린 정취를 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향민들은 신선봉을 바라보며 망향의 한을 달래고 통일의 그날이 오기만을 부처님전에 기원한다.

올해로 20년째 화암사를 찾고 있는 이건실씨(59)는 "금강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법회가 봉행되고 있어 화암사를 찾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가족 친지들의 따뜻한 손 한번 잡아보고 죽는 것이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화암사는 새해맞이 타종법회를 시작으로 일년내내 통일기원을 위한 법회가 끊이지 않는다. 조국분단으로 50년 가까이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온 국민의 한을 부처님의 협력으로 풀어보려는 원력에서 부터 비롯됐다. 이로인해 망향의 그리움을 달래려는 전국 각지 불자들은 금강산 자락의 화암사로 모여든다. 화암사는 수행과 포교의 도량뿐만 아니라 실향민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도량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화암사는 천년고찰이다. 사방에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봉우리가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동해의 푸른 바다가 열려 있어 금강산의 장관을 만끽 할 수 있다.

신선봉에서부터 화암사까지 이어지는 금강계곡도 비경을 이룬다. 물은 푸르다 못해 검고, 우렁찬 물소리는 찌든 속진의 때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미타암 앞의 세진폭포는 흰벽에 푸른물이 조화를 이뤄 사찰경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준다. 한마디로 금강산의 속살을 보는듯 하다.

신라 혜공왕 5년(서기 769년) 진표율사가 창건한 화암사는 초입부터 부도와 탑, 비가 즐비하게 놓여있어 선찰의 품위를 느끼게 한다. 특히 화암사는 광명, 승휘, 해성스님등을 비롯 역대 유명한 스님들의 수도장이었다. 지난 91년 세계잼버리 대회때 불교국가 청소년 1천여명이 수계를 받는등 1천6백년 한국불교를 소개함으로써 문화민족의 자긍심과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줬다. 통일이 되어 남북의 청년불자들이 이 도량에서 가슴을 터놓고 축제를 벌일 그날은 언제인가.

화암사는 1990년을 기점으로 대웅전과 명부전, 금강교, 금강루 평화통일기원길상 대범종 등을 낙성, 금강계곡의 운치와 절묘한 조화를 이뤄 국내사찰 가운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통일염원 기도도량으로 중수됐다.

또한 화암사는 어려서 건봉사 극락암에 입산해 수행하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처님을 등에 업고 피난을 하던중 적으로부터 혹독한 매를 맞고 허리를 다친 80고령의 노비구스님의 기도처로서 오랜 명목을 유지해 왔다는 일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역대고승 수도도량

신선봉의 자락이 동해로 향해 뻗다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수바위. 화암사 남쪽 3백미터 지점에 왕관모양의 우람한 수바위는 진표율사를 비롯 역대고승들의 좌선수도도량이었다고 전해진다. 또 바라다보는 위치마다 전혀다른 모습의 수바위 윗면에는 깊이 1미터 둘레 5미터인 웅덩이에 사시사철 물이 고여있어 국내사찰의 7대불가사의중 하나로 꼽히며 가뭄이 들 땐 이 웅덩이의 물을 주위에 뿌리고 기우제를 올리면 비가 내린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마르지 않는 우물때문에 수바위를 '수암(水巖)'으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바위 모양이 워낙 빼어나기 때문에 옛부터 '수암(秀巖)'이라 불리워진다.

◇화암사 남쪽 300m 지점에 왕관모양의 우람한 수바위가 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모습이 다른 이 바위는 마치 스님이 북녘을 향해 합장하는 형상을 보이기도 한다.

백두산 병사봉에서 시작돼 백두대간의 큰 줄기를 이루는 금강산은 누구나 한번쯤 구경하고 죽기를 소망하는 한반도 제일의 명승지다.

해방직전만 해도 금강산에는 1백8개의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민족의 영산으로 받드는 금강산에는 유점사, 보현사, 장안사, 건봉사… 이름만 들어도 달려가보고싶은 도량이 있다.

그래서 수려한 산세와 명찰들을 찬탄한 선시가 많이 전해진다.

'옛날 금강산 정양사에 있을 때는 다같이 젊었는데/ 십년만에 만난 얼굴 모두 가을빛이구나/ 덧없는 인생은 구름비라, 바람따라 지나가고/ 도를 닦는 일은 허공꽃이라, 손대기조차 어려워라/ 골짜기의 심천 개울은 흰 비단을 펼쳤고/ 하늘끝의 봉 옥을 세워놓았다/ 솔꽃과 연꽃있은 예와 다름없는데/ 금강산에 누워 가장 한가하구나.'

조선조때의 고승 편양선사가 금강산 정양사의 경금스님을 찾아가 읊었던 선시다.

금강산은 빼어난 절경을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고승들의 수도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이 갈려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수행할 수도 없다. 더이상 허리가 잘려진 금강산이 아니라 금강산 초입 신선봉에서 백두산 병사봉까지 마음놓고 유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에는 온 국민들의 대서원 민족통일이 꼭 이뤄지길 간절히 발원해본다.

글=김중근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잠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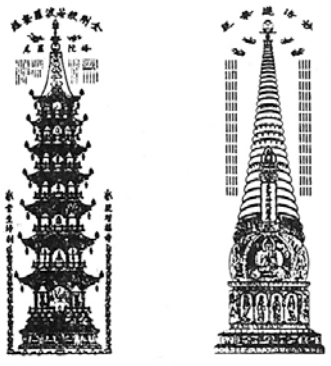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90.9%, 뇌출혈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작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옴반지 84%, 옴물 결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관련된 과학자의 관단능력을 넘어선 옥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신문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 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에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